

# “노인을 꼭 안아주세요”

## 지난해 광주·전남 노인학대 354건...이중 68%가 친자녀에 당해

### 오늘 '세계 노인학대 인식의 날' 행사 다채

광주·전남에서 학대받은 노인의 68%는 친아들이나 딸에게 당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자녀는 부모에게 돈을 요구한 뒤 제대로 돌보지 않거나, 흥기를 휘두르는 등 패륜 행동도 서슴치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노인학대예방을 위해 제정된 '세계 노인학대 인식의 날'인 15일 광주·전남에서는 노인 안아주기(Hug)·효 서약서 쓰기 등 다채로운 행사가 열린다.

〈진저리 마른자리 갈아 뉘었건만〉=이모(81·순천시 조례동)씨의 지난 3년간은 지옥과 같았다. 아들이 숨진 뒤 며느리가 집을 나가자 이씨는 갈 곳 없는 손자(26)와 증손자(2)를 데리고 살았다. 손자는 술만 마시면 주먹을 휘둘렀다. 집안 살림을 부수는 것도 모자라 흥기마저 휘두르는 손자의 패륜에 놀란 이웃들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지만 이씨는 때때로 "맞은 적 없다"며 이들을 돌려보냈다.

이처럼 광주와 전남 노인학대예방센터에 접수된 노인학대 건수는 지난해 354건. 이중 68%인 242건(아들 199·딸 43)은 친자녀들에 의한 학대였고, 피해 노인도 지난 2005년 235건에 비해 50%가량 늘었다.

유형별로는 ▲언어 정서적 폭력 261건 ▲방임 128건 ▲신체적 폭력 81건 순이었다.

〈노인체행 행사도〉= '세계 노인학대 인식의 날'인 15일 광주·전남지역에선 다양한 기념 행사가 열린다. 이날 광주시 동구 충장로 우체국 앞에선 광주노인학대예방센터 주관으로

'노인 안아주기' 행사 등을 개최된다.

노인 안아주는 최근 인터넷 등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무료로 안아드려요'(Free Hugs)에서 착안, 센터 자원봉사자와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6명의 남·녀 노인이 시민들을 안아주며 체온을 나누는 행사다.

센터는 또 '부모에게 효도할 것'을 맹세하는 '효 서약서'를 작성해 시민에게 나눠준다. 등을 구부려야 입을 수 있는 옷과 안경을 착용하고, 무거운 모래주머니를 발에 차고 걷는 '노인 체험' 행사도 눈길을 끈다.

전남노인학대예방센터도 16일 광

▲세계노인학대인식의날 = UN과 세계노인학대방지망(INPEA)이 지난해 노인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인식을 높이고자 제정한 날로 세계 각국에서 캠페인 등 행사를 진행한다. 올해 제2회 세계노인학대인식의 날 기념식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WHO 주관으로 개최된다.

양시 광양읍 광양시장에서 ▲노인 안아주기 ▲노인학대 사진전시회 ▲구호 외치기 등의 행사를 연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 노인지원변호사단 활동

#### 광주지방변호사회

광주지방변호사회(회장 국중돈)는 14일 노인들에 대한 각종 법률 및 인권문제 개선을 위해 '노인법지원변호사단'을 구성, 활동에 들어갔다.

광주지방변호사회는 이를 위해 노갑규 변호사·김상훈 변호사를 각각 '노인법지원변호사단' 광주지부장과 간사로 선출했다.

'노인법지원변호사단'은 노인과 관련된 각종 법률 입법과 정책연구·생활법률 상담·노인관련단체 지원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14일 광주시 남구 구동체육관에서 열린 '제2회 광주시장이 어르신 건강축제'에서 노인들이 즐거운 응원을 펼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 주택가 보일러 기름통 폭발 1명 사망·3명 중화상

도심 주택가에서 보일러 기름통 폭발로 추정되는 불이 나 1명이 숨지고 3명이 중화상을 입었다.

14일 오후 7시22분께 광주시 서구 유촌동 박모(39)씨 집에서 보일러 기름통이 폭발하면서 불이나 박씨의 작은 아들(3)이 그 자리에서 숨지고, 박씨와 큰아들(6)·처남 김모(48)씨 등이 중화상을 입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와 김씨는 이날 보일러를 가동하려고 집 뒤에 있는 보일러 기름통을 살펴 보기 위해

라이터를 켜는 순간, "굉" 하는 소리로 함께 불길에 치솟았다는 것. 경찰은 이 불이 집안으로 옮겨타면서 박씨 등이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박씨 등은 전남대 병원 등에 분산, 치료를 받고 있으나 중태다.

경찰은 박씨 등이 이날 내린 비로 축축해진 방판을 건조하기 위해 보일러를 가동하려다 사고가 난 것으로 정확한 사고원인 등을 조사 중이다.

/인현기자 ahj@kwangju.co.kr

## 여수 중학생 아파트 투신 자살

### 경찰, 집단 따돌림 수사

14일 오전 10시5분께 여수시 선원동 Y 중학교 인근 D아파트 주차장에서 최모(14·Y중 2년)군이 피를 흘린 채 숨져 있는 것을 이 아파트 경비원이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아파트 옥상에 최군의 휴대전화·가방 등이 놓여 있는 점 등으로 미뤄 스스로 투신한 것으로 보고 있다.

최군은 숨지기 3시간 전부터 같은 반 친구에게 "안녕, 장례식장에 와 달라"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최군의 유족들이 "자살할 이유가 없다. 아마도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왕따'를 당했을 것 같다"고 진술함에 따라 학교 등을 상대로 집단 따돌림 등을 조사하고 있다.

/여수=강성훈기자 kangsw@

## 광주향교 이사회 前임원들

### 향교 땅 처분해 역대 유용

광주향교 이사회 전(前) 임원들이 향교소유의 토지를 마음대로 처분해 역대 의 돈을 유용한 사실이 드러나 향교재산법위반 혐의와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경찰과 검찰에 각각 고발돼 조사를 받고 있다.

14일 광주시와 남부경찰에 따르면 광주향교 이사회의 전 이사장 박모(79)씨와 전 사무국장 강모(80)씨가 지난 2003년부터 광주시 서구 풍암동 일대의 향교 소유의 땅을 시장의 허가를 받기 전에 임의로 매각했

으며 과정에서 이사회의 인장을 도용하고 이중계약서를 꾸미는 등 부당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04년 7월께 광주시 서구 풍암동 715번지 일대 6필지 536평(1769㎡)을 5억3천400만원에 매각했으며 2005년 9월께 2필지 204평(674㎡)만 4억800만원에 판 것으로 계약서를 꾸미며 차액 1억2천600만원을 임의로 유용한 혐의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농촌사랑 명의 도용 수사

#### 광주·전남 64곳 압수수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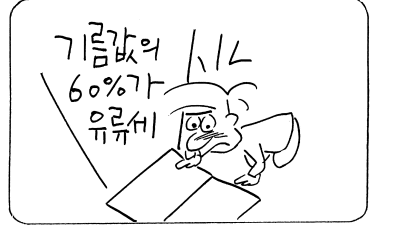
농협중앙회의 고객 명의 무단 도용 사건을 수사중인 전남지방경찰청은 14일 '농협중앙회 농촌사랑 법국민운동본부'(이하 농동본부)와 농협 광주지부·전남지부를 포함한 광주·전남 지역 농협 59개 영업점 등 총 64곳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관련

서류 압수에 나섰다. 경찰은 특히 '농촌사랑' 회원들을 관리하고 있는 운동본부의 회원 관리 데이터베이스(DB)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도 함께 발부받았다.

경찰은 회원 관리 DB 분석과 이미 탈퇴한 회원 명단 복구 등을 통해 농협이 '농촌사랑' 회원 모집 과정에서 고객 명의를 무단 차용한 혐의점 등을 밝혀낼 계획이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 니원침 (7236) 김중도



**더 좋은 건축·산업재 KCC**  
**DS건설(주)** KCC창호, 센스도어 대리점  
**KCC창호, 시스템창호 생산·시공**  
 ▶ 본사: (062)514-3002 ▶ 공양: (061)337-9605  
**(주)본드나라** KCC실리콘 페인트 대리점  
**실리콘·방수제·접착제·테이프**  
 ▶ 광주점: (062)525-9002 ▶ 전주점: (063)271-5051

### '토익 만점' 30대 배달원 위장 돈 훔쳐

○"절도 전과 14범인 30대가 음식점 배달원으로 위장취업해 수급한 돈을 훔쳐 달아났다"가 경찰에 달미.

○"광주 북부경찰에 따르면 김모(33)씨가 지난해 16일 광주시 서구 쌍촌동 M중화요리 배달원으로 취업한 뒤 2일 동안 배달하고 수급한 30만 원을 들고 달아나는 등 지난 1월 초부터 최근까지 전국을 돌며 10차례에 걸쳐 같은 수법으로 1천500만 원을 훔쳤다는 것.

○"김씨는 9살 때 미국으로 건너가 10여 동안 살았으나, 영주권 취득에 실패하자 귀국한 뒤 10여년 동안 도둑질로 생계를 이어오다 14차례나 감옥신세를 지다.

○"김씨는 "복역 중 토익시험을 치러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아 감형되기도 했으나 취업이 어려웠다"고 하소연. /이종형 기자 galee@

## 건설사주 납치 "생매장 하겠다" 협박

### 전남경찰, 조폭 3명 영장·납치 청부 건설사 간부 등 수배

전남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4일 건설사 사주를 납치·감금해 거액을 요구한 조폭조직 '신 서방파' 조직원 박모(23·광주시 북구 양산동)씨 등 3명을 납치·인질강도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달아난 신모(24)씨 등 2

명의 신 서방파 조직원과 납치·감금을 청부한 경기도 안양 주택건설업체 D사 상무 등 4명을 같은 혐의로 쫓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지난 10일 낮 12시 30분께 담양군 창평면 호남고속도로 하행선 갓길에서 잠시 차

를 멈춘 광주지역 H건설 사장 이모(45)씨와 직원 강모(40)씨 등 2명을 흥기로 위협, 납치한 뒤 12시간 동안 광주·전남지역을 끌고 다니며 폭행·협박을 해 3억원 상당의 현금 지불각서를 작성케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박씨 등은 D사 상무

들이 "이씨가 소개한 업체가 12억원에 달하는 어음을 할인해주기로 했으나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이씨에게 손해배상 명목으로 3억원을 받아 내면 1인당 3천만원을 주겠다"는 청부폭력 제안을 받고 조직원 5명을 동원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 등은 또 납치한 이씨를 광주시 광산구 하남동 한 야산으로 끌고가 "손가락 두 개를 잘라내 도장을 찍은 뒤 산재로 땅에 묻어버리겠다"며 3억원짜리 현금 지불각서를 강제로 쓰게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인현기자 ahj@kwangju.co.kr

세계인을 친구로! 내 고향을 명소로!

# 400년을 이어온 전통 **법성포 단오제**

법성포 단오제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일 시 : 2007년 6월 17일~19일 / 3일간  
 ● 장 소 : 영광군 법성면 법성리·진내리 일원  
 - 법성포 숲쟁이 공원본무대(주간) - 숲쟁이 꽃동산 주차장 특설무대(야간)

행사 내용	제전의 날 07.6.17(일)	체험의 날 07.6.18(월)	민속경연의 날 07.6.19(화)
제례행사 시연으로 전통 문화 열 계승 견문 마당	직접 체험을 통해 즐거움을 더하는 체험 마당	전통 민속놀이로 힘과 지예를 겨루는 마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산신제(인의제)</li> <li>당산제</li> <li>길놀이(오방놀이)</li> <li>전국연날리기대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굴비만들기</li> <li>창포머리감기</li> <li>쑥메치기, 옛치기</li> <li>제8회 국악경연대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4회 그네뛰기대회</li> <li>단오왕선발씨름대회</li> <li>민속놀이 경연대회</li> <li>민속예술공연 등</li> </ul>	

■ 주최·주관 : (사)법성포단오보존회 ■ 후원: 영광군 ■ 협찬: 영광원자력본부